

제51차 ITU 이사회 참가 결과



김재목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실

목 차

- | | |
|--------------------|-----------------------------|
| 1. 서론 | 4. 향후 회의 일정 |
| 1.1 ITU 현황 | 5. 기타사항 |
| 1.2 ITU 이사회 현황 | 6.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 |
| 2. 제51차 ITU 이사회 개요 | 7. 참가소감 |
| 3. 주요 회의 결과 | 붙임 : ITU 이사회 제51차 회의 참가자 현황 |

1. 서론

1.1 ITU 현황

1865년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선전신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설립된 만국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이 무선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무선 통신을 포괄적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오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 재탄생된

것은 1932년이다. 한편, 1947년에는 전기통신, 전파통신, 위성통신, 방송등의 국제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에서의 전문 기구로 그 위상을 정립하였는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30여년의 역사를 과시하며 장수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바로 ITU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구의 목적 및 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TU 헌장(Constitution)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ITU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

제협력의 증진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이를 위한 재원 조달
- 정보통신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설비 개발 촉진
-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TU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행하게 되며, 이러한 기능 역시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시대적 요구에 의해 진화되었고 또한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대역의 배분과 무선 주파수의 분배, 그리고 할당된 무선주파수의 등록 및 정지위성 궤도상에 있는 임의의 관련 궤도의 위치를 등록
- 범세계적인 정보통신표준화를 촉진
-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 정보통신설비와 통신망의 건설, 개발 및 개선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의 수행, 규칙의 제정, 결의의 채택, 권고 및 의견을 작성하고 정보를 수집 및 발간

ITU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통신분야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팽창 추세에 부응하여 지난 1992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추가전권 위원회의에서 대폭적인 구조개편(그림1참조)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ITU는 185개 회원국('96. 6. 현재)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4년마다 개최되어 ITU 현장과 협약의 개정, 주요정책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권 위원회의, ITU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1994년 도쿄에서 개최된 전권위원회에서 선출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매1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는 이사회, 국제전기통신규칙(ITR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을 개정하는 부정기적인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전파통신규칙(RR : 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며 매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 전략계획

과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총국, 사무총장에 대한 자문 및 실무상의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된 조정위원회와 세계정보통신자문위원회, 그리고 아래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파통신부문

- 세계/지역전파통신회의(WRC/RRC), 비상근의 전파규칙위원회(RRB), 전파통신총회(RA)와 산하 연구반(SG) 및 자문반(RAG)으로 구성
- 전파통신부문의 합리적, 경제적, 효과적이며 공평한 사용을 촉구

○ 전기통신표준화부문

-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와 산하 연구반(SG) 및 자문반(TSAG)으로 구성
- 전기통신부문을 세계규모로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술, 운용과 요금문제에 대한 연구수행 및 권고 채택

○ 정보통신개발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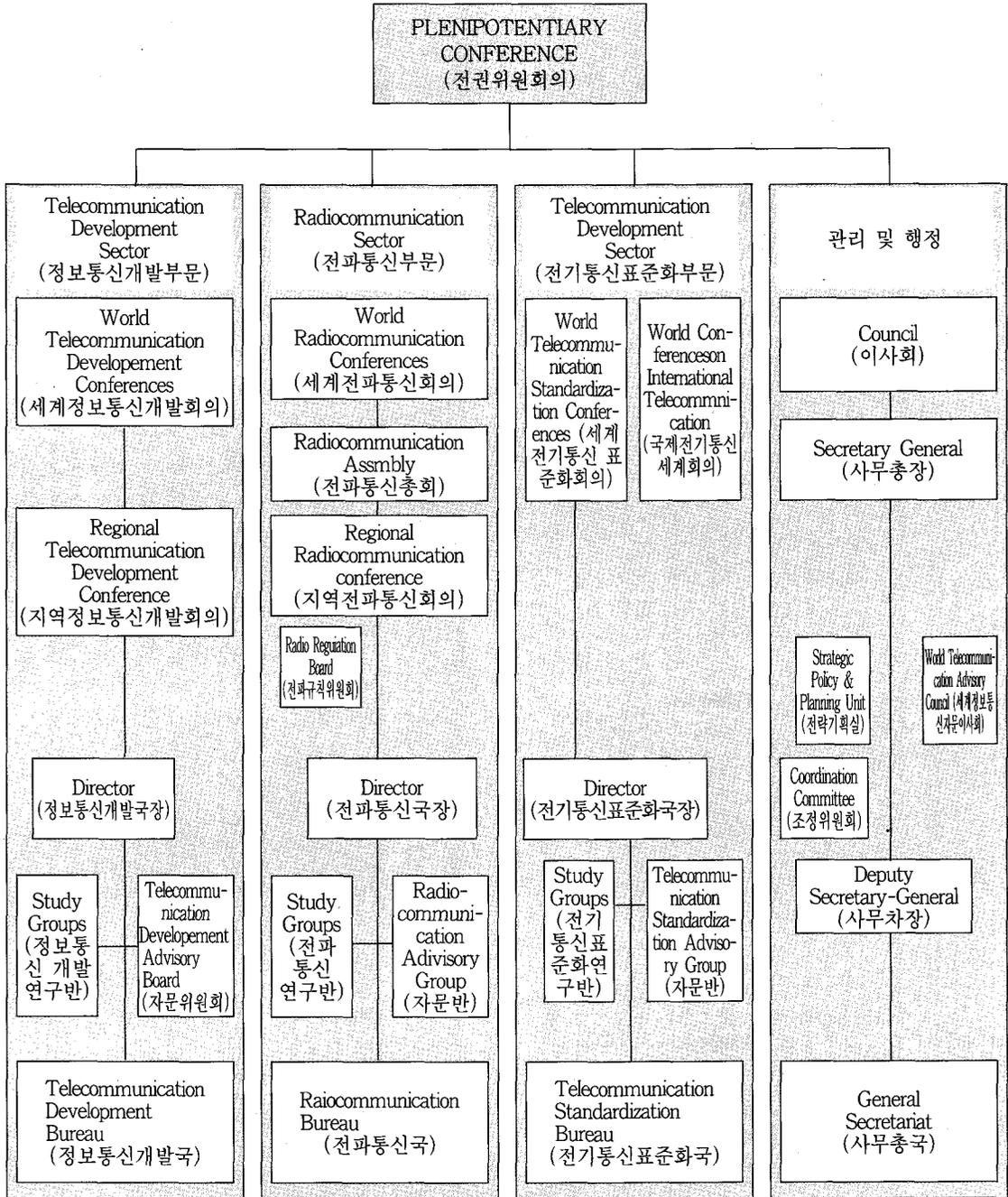
- 세계/지역정보통신개발회의(WTDC/RTDC)와 산하 연구반(SG) 및 자문위원회(TDAB)로 구성
- 기술협력과 기술원조를 위한 활동의 제공 및 조정
- 이를 통한 정보통신의 개발 촉진

1.2 ITU 이사회 현황

1992년 추가전권위원회회의를 전후하여 ITU의 구조 및 기능을 대폭 개편할 때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과제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기존의 관리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급변하는 국제통신 환경에 대응해 갈 것인가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ITU의 구조개편을 총체적으로 검토했던 고위위원회(High Level Committee)의 권고를 기초로하여 추가전권위원회회의에서 개정된 현장에 따른 이사회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제51차 ITU 이사회 참가 결과



[그림 1]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조직도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제51차 ITU 이사회 참가 결과

- 전권위원회의의 두 회기 사이에 ITU의 목적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권위원회의가 위임한 권한내에서 주요정책 심의
- ITU 헌장(Constitution)과 협약(Convention), 업무규칙 (Administrative Regulations) 그리고 전권위원회의 및 각종 회의의 결정에 따른 회원국들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 시행
- ITU 업무의 효율적인 조정 및 사무총국과 3개 부문에 대한 재정적 관리
- UN 사업에 ITU가 참여하는 방안 및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발전에 기여

전권위원회의는 전세계를 5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사회에의 참여가 각 지역에 공평하도록 배분, 교토회의에서 46개국을 선출하여 1995~1998 회기년도의 이사회를 구성(표2참조)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989년 니스전권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사국에 피선되었고 184개 회원국이 참여한 1994년 교토 전권위원회의에서는 126표를 얻어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 2위로 이사국에 재선되어 활동중에 있음으로서 사무총국을 포함한 ITU내 인사 및 예산 결정에의 간접적인 참여, 주요 정보통신 정책과 관련한 정보의 사전 확보, ITU내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등으로 국가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

(표2) ITU 이사국 현황

지 역	이사국수 (회원국수)	국 가 명
A(미주)	8(32)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바하마, 쿠바
B(서유럽)	8(33)	프랑스, 덴마크,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 이태리
C(동유럽·북아시아)	5(20)	러시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D(아프리카)	13(52)	남아공, 세네갈, 이집트, 케냐, 모로코, 브르키나파소, 카메룬, 탄자니아, 베냉, 말리, 알제리, 나이지리아, 카페베르데
E(아시아·대양주)	12(48)	일본, 한국,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사우디, 쿠웨이트, 베트남, 파키스탄
계	46(185)	

2. 제51차 ITU 이사회 개요

제51차 ITU 이사회가 '96년 6월 19일(수)부터 28일(금)까지 10일간 스위스 제네바 ITU본부 회의실에서 이사국 대표, 주관청 읍저버, 부문회원 읍저버, ITU 직원등 약230 여명(세부내역은 붙임

참조)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 국제기구과장을 수석대표로하여 TTA, KT, KISDI, KMT의 실무자 7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는 본회의와 2개 상임위원회(재정, 인사)로 구성하여 운영되는데 금번 이사회의 회의일정 및 의장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회의일정

날 짜	오 전	오 후	비 고
6/19(수)	1차 본회의, 1차 인사위원회	1차 재정위원회	
6/20(목)	2차 인사위원회	2차 재정위원회	
6/21(금)	3차 인사위원회	3차, 4차 재정위원회	
6/24(월)~6/28(금)	2차 ~11차 본회의		10차 본회의는 6.27(목) 19:00~22:00에 개최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제51차 ITU 이사회 참가 결과

○의장단 구성

구 분	의 장	부의장	비 고
본회의	Mr. K. Mirski(불가리아)	Mr. R. Giunta(아르헨티나)	
재정위원회	Mr. U. Mohr(독일)	Mr. S. Al-roumi(쿠웨이트)	
인사위원회	Mr. A. Mapunda(탄자니아)	Mr. R. SA(브라질)	

※ 이사회 의장단은 매년 지역별 교대제 실시

6월 19일에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 ITU 사무총장(Dr. Tarjanne)은 개회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였다.

○'94 전권위원회(교토) 결의사항의 실행점 검과 '98 전권위원회(미네아폴리스, 미국)를 대비하여 신규전략 수립을 위한 중간 점검의 의미로서 금번 이사회가 중요

○'96. 6월 현재 185개 회원국(Tuvalu 가입시 186개국)

- 부문회원 : ITU-R(200), ITU-T(297), ITU-D(115)

○금년 이사회회의 주요이슈

- 부문회원의 권리·의무 강화, 연합의 재정기반 강화
- Worldtel : 10million\$ 자금 조성, 런던, 제네바 사무소 개소
- 정책포럼 :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렬과 관련 GMPCS를 주제로 하는 1차 포럼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2차 포럼 주제로 trade in telecom service를 고려중

3. 주요 회의 결과

○ITU 전략정책 및 계획 보고서

- '95~'99 전략계획 달성을 위한 조치보고 및 미래 정책 방향 권고
-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민간부문 참여증대와 부문별 적응 노력

- 연합의 기반 강화, 활동영역 확대, 국제 활동 증대
- 환경 변화 예측과 적응을 위해 '92 임시전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조직 개편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수립 필요

- 미래전략정책('99 ~ 2003)

- 21세기에 대비하여 민간부문 참여 증대와 재정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전략정책 초안을 '98 이사회까지 연구하여 '98 전권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

○부문회원의 권리와 의무 증대

- Review Committee의 연구 보고서 검토
- 경쟁·자유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통신분야의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필요
- 부문회원의 권리·의무 신장을 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기술키로 함.
- 비규제적 성격의 권고 제정시 정부 주관청의 동의 요청없이 연구반에서 결정토록 하는 방안에 관하여 계속 검토
- 분담금 체불회원의 ITU 활동참여 제한은 ITU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대 제기
- 비정부기관의 회원가입신청을 정부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ITU에 제출하여 ITU가 해당국가 통보 후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가입을 승인하는 제도 도입

- 에 관해서 반대의견 제기
- 권고사항 중 이사회가 전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구분해서 금년 결정사항은 현장/협약 개정에 반영키로 결정
- ※ ITU 전략정책 작업반을 구성하여 '97 이사회에 보고토록 함.
- 연합의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권고 채택
 - 부문별 활동에 대한 비용절감 요소 평가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생산성 지표 검토
 - Universal International Freephone Number 특별 계좌 신설
 - 상품 및 서비스의 Outsourcing 고려 강화 및 직원수 최소화 노력
 - 비용 보전을 위한 TIES 및 Seminar 관련 특별계좌 신설
 - 수익 추구행위와 관련된 일반지침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하기로 하고, 체불 회원국에 대한 ITU 활동 참여 제한에 관해서는 전권위원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
- ITU 전략정책 작업반 구성
 - 결의 15(부문화원의 권리.의무) 및 결의 39(재정기반강화) 관련 보고서를 고려한 결과, 모든 회원국과 부문화원이 참여 가능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미래정책방향과 연계한 연구를 계속키로 결의
 - 동 작업반은 회원국과 부문화원의 권리.의무, 재정기반강화 및 이에 따른 ITU의 구조개편에 관하여 '98 전권위원회의에 보고할 권고안과 현장/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97 이사회에 보고
 - 임시 사무국(모로코, 러시아, 캐나다, 미국, 영국)을 구성하고 사무총장이 모든 회원국에 참여 여부를 조속히 문의토록 함
 - 지역안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하며 1차 모임은 '96. 10/11월에 가질 계획

- Call-back 서비스에 관한 특별조치
 - ITU-T SG3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결의 검토
 - WTSC와 전권위원회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이사회에서의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음
 - Call-back 서비스에 대한 회원국 입장 조사결과('96. 6월 현재)
 - 63개국 회신 : 40(금지), 8(규제), 7(미정), 8(허가)
 - 표준화국이 PSTN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Call-back 서비스 관련 수단과 관행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조속히 마련하고, 표준화 국장은 모든 회원국에 그 진척 상황을 통보키로 결의
- 세계정보통신정책포럼
 - 제1회 정책포럼('69. 10. 21~10. 23)
 - 포럼 전일 배경설명, 사업자들의 입장 설명 기회부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Information Session 예정
 - APT 준비회의의 결과는 사무총장 보고서에 포함
 - 제2회 정책포럼
 - '98. 3월 말 세계정보통신개발회의(Malta)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내년 WTO NGBT 결과를 고려, '97 이사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에 있어서의 무역이슈(Trade in telecom services) 또는 세계정보통신기반구조(GII) 중 주제를 결정키로 함.
- 재정문제
 - '95년도 재정운영보고서 및 외부감사결과 승인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제51차 ITU 이사회 참가 결과

· '95년도 수입 및 지출

(단위 : SFr.)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부 족
일반예산	158,671,469.09	143,503,023.78	15,168,445.31
기술협력 특별계정예산	2,828,560.00	3,014,313.41	-185,753.41
출판예산	11,598,061.70	11,567,335.52	30,726.18

· 외부감사 결과

- * '95. 1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재무규정과 회계시스템의 전산화 권고 → Action Plan 보고서를 '97 이사회에 보고
- * Telecom 회계정산에 관한 투명성 제고 → Telecom '95 회계결과를 '97 이사회에 공식 제출

- 재무정산과 특별채무계정

- '95년 체납액(28백만SFr.), 특별채무계정의 분담금(6백만SFr.)
- 분담금 체납으로 투표권 상실 회원국은 34개국이며, ITU 활동참여가 중지된 회원은 4개기관('96. 5월말)
- 분담금 체납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해 '71~'91년 사이의 체납액(6백만SFr.)을 일반예산에서 전입키로 결정

- ITU 신축 건물(Montbrillant building) 소요예산 추가편성 의결 : 507천SFr.

- bottom-up approach를 통한 부문별 예산

및 비용의 체계적 분석 결정

- ITU 본부 내 ATM LAN의 설치

- 업무 효율성 증대와 회원국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고속 광대역 ATM LAN 설치비용(3.5백만SFr.)을 준비금 계정에서 전입키로 결정

○인사문제

- 복무조건에 관한 UN총회 결정의 ITU 내 적용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문그룹(Tripatite Consultative Group) 구성
 - 이사회, 사무국, 직원 3자 대표로 구성
 - Staff과 관련된 제반 문제 연구 및 필요 조치 권고
- ITU Staff 연금위원회 멤버 구성
 - 이사회, 사무국, 사무국 직원 대표 각 3인
 - 이사회 대표로 공석중인 교체 멤버로 우리부 국제기구과장 선임(임기 '97/'98 Session)

*는 신규멤버

Member	Alternate Member	임 기
R. Maga(카메룬)	*W. Ruca(루마니아)	'97 Session 까지
L. Weintranb(미국)	*H. Y. Kim(한국)	'98 Session 까지
*M. Lieser(독일)	*SA Ronald(브라질)	'99 Session 까지

- 직원 채용에 있어 지역대표성 및 개도국에 대한 배려 노력 필요

- G 등급에서 P 등급으로 승진한 직원들과 관련하여, 양 직급의 급여기준 및 시스템의 상이함으로 인해 급여, 연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평성 확보방안 마련 시행

- 영구직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인 개발국(BDT)의 직위간 배분개선을 위한 조치 시행

- Telecom 사무국의 구조를 프로젝트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

○ITU와 WTO간의 협력

- 양기구의 협력강화와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현재 WTO와 협상 진행중
- ITU 사무총장은 WTO NGBT의 협상결과가 내년 2월초로 예정됨에 따라 제2회 정책포럼의 주제를 정보통신서비스에 있어서의 무역 이슈로 할 것을 검토중임을 보고

4. 향후 회의일정

○'97년 이사회

- 미래전략정책, 제2회 WTPF, 예산심의 등의 중요의제가 많아 회의기간 연장이 논의됨
- '97. 6. 18~6. 27(10일간) 개최하되, 회의 진행방식 개선과 회의문서의 사전송부가 보장되도록 노력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96) :

'96. 10. 9~10. 18, 스위스 제네바

○세계정보통신정책포럼(WTPF-96) :

'96. 10. 21~10. 23, 스위스 제네바

○아랍 지역정보통신개발회의(AR-RTDC-96)

: '96. 11. 11~11. 15, 레바논 베이루트

○전파통신총회(RA-97) :

'97. 10. 20~10. 24, 스위스 제네바

○세계전파통신회의(WRC-97) :

'97. 10. 27~11. 21, 스위스 제네바

○세계정보통신개발회의(WTDC-98) :

'98. 3. 23~4. 3, 말타 발레타

○'98 전권위원회의 : '98. 10. 12~11. 6(4주간),

미국 미네아폴리스

5. 기타 사항

○분담금 승인/감면

- 에티오피아 가입 승인 분담금 : 1/16단위 ('97년부터)
- 분담금 경감 : 바레인(1/2 → 1/4단위 : 부결)
유 고(1→1/2단위 : '98 전권위원회의 회부)

- APSCC(아·태위성통신협의회), Internet Society는 '98 전권위원회의 결정시까지 잠정적으로 분담금 면제를 연장

○국제요금정산에 관한 ITU-T SG3 보고

- Collection Charge의 불균형으로 인한 call-back의 폐해 감소를 위해 cost orientation 개념을 적용한 cost model을 개발한 바 이러한 모델을 더욱 연구 발전키로 결정
- 개도국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개념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지속하여 '98 전권회의에 회부키로 결정

○회의의사규칙의 제정

-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에 대한 잠정연구 보고서 검토
- 협약 제32조 회의절차규칙을 분리하여 별도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헌장 및 협약의 관련조항 개정
- 제16항 유보(Reservation) 조항을 협약에서 분리하는 문제는 별도의 연구를 거쳐 '97 이사회에 보고
- 협약 23-30조의 관련조항을 의사규칙 초안에 포함하는 문제는 이사회가 아닌 전권회의에서 결정할 사항
- '97 이사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 회람후 '98 전권회의에서 최종 결의

○ITU-R과 ITU-T의 업무 조정

- TSAG과 RAG가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수행한 연구결과 보고

- 연구가 미진하지만 Rapporteur Group('96. 2월 구성)이 계속 연구하여 '98 전원 회의에 보고

○ITU 언어에 관한 연구

- ITU 사용언어에 대한 연구결과를 회원국에 회람시켜 의견 수렴 계획
- 사용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회원국에 배포하고 small group을 구성하여 '97 이사회에 보고

6. 한국 대표단 주요 활동

한국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에 관해서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

○회의참가 및 발언

- ITU와 WTO간의 협력
 - WTO에 정보통신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ITU 입장을 반영키 위한 양기구간의 협력관계 정립 필요
 - NGBT 미참여 개도국을 위해서 ITU가 중개역할을 해야 함
- 부문의회의 권리와 의무
 - 민간분야 참여 필요성을 인정하고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 분담금 비율(1 : 1/5) 유지 필요
 - 부문의회의 권리·의무 신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입장이 상반되는 사항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
- 세계정보통신정책 포럼
 - 제2회 포럼은 '98 세계정보통신개발회의와 연계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 무역이슈를 주제로 개최할 것을 주장

- Telecom 수익금의 사용

- 개도국 통신지원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97 이사회에 사용내역 보고 요망

- ITU 전략정책 작업반 구성 참여 요청

-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고, 선·후진국간 비율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7. 참가소감

○민간부문의 활동강화

- ITU내 활동에서 비정부기관의 활동영역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민간부문의 적극 참여가 필요
- 특히, 우리나라 민간업체들의 표준화활동 참여를 위해 부문별 회원가입 추진

○주요이슈에 대한 정책대응 노력 강화

- 1999~2003 ITU 전략정책 수립, call-back 서비스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국내 정책대응 마련 및 입장정립 필요
- 제1회 GMPCS 정책포럼('96. 10. 21~10. 23, 제네바) 개최관련 국내 정책방향 정립

○ITU 활동의 체계화

- ITU내 표준화, 전파, 개발부문 활동에 대하여 우리부와 민간부문간의 체계적 정보교환과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국제활동 역량 제고 방안 강구

- 분야별 전문가그룹 육성
- 관련분야 국제회의에 지속적 참여
 - 특히 ITU 전략정책 수립 작업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전문가 지정

○ITU 직원 파견 추진

- 우리나라와 ITU간 국제협력 증진,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및 교류 강화 필요

붙임 : ITU이사회 제51차 회의 참가자 현황

ITU 이사회 제51차 회의 참가자 현황

○이사국 참가자 : 45개국 175명

No	국가명	참가자수	No	국가명	참가자수	No	국가명	참가자수
1	알제리아	4	17	덴마크	4	33	필리핀	4
2	독일	5	18	이집트	2	34	폴란드	2
3	사우디아라비아	1	19	스페인	3	35	포르투갈	6
4	아르헨티나	2	20	미국	9	36	루마니아	3
5	호주	3	21	프랑스	7	37	영국	11
6	바하마	1	22	인도	2	38	러시아	8
7	베냉	2	23	인도네시아	7	39	세네갈	4
8	브라질	3	24	이태리	4	40	남아공화국	3
9	불가리아	6	25	일본	4	41	스위스	6
10	부르키나파소	2	26	케냐	2	42	탄자니아	3
11	카메룬	3	27	쿠웨이트	2	43	태국	5
12	캐나다	4	28	말리	3	44	우크라이나	3
13	카페베르데	1	29	모로코	5	45	베트남	4
14	중국	5	30	멕시코	2			
15	한국	7	31	나이제리아	3			
16	쿠바	1	32	파키스탄	2			

○주관청(비이사국) 참가자 : 13개국 14명

No	국가명	참가자수	No	국가명	참가자수	No	국가명	참가자수
1	벨지움	1	6	슬로박	1	11	헝가리	1
2	시프러스	1	7	체코	2	12	네덜란드	1
3	그리스	1	8	싱가포르	1	13	이스라엘	1
4	노르웨이	1	9	스웨덴	1			
5	시리아	1	10	터어키	1			

○부문회원 참가자 : 3개기구 4명

- UNDP, ONU, UPU(2)

○ITU 선출직 간부 : 5명

- 사무총장 : Mr. P. Tarjanne(핀란드)

사무차장 : Mr. H. Chasia(케냐)

전파통신국장 : Mr. R. W. Jones(캐나다)

전기통신표준화국장 : Mr. Th. Irmer(독일)

정보통신개발 국장 : Mr. A. Laouyane(튀니지) 